



함께 읽기는 즐겁다. 백팩스 회원들이 이정모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장의 강연을 듣고 기념 촬영을 했다.

백복스 제공

교수·제자들 강의실 모임, 학교 담장 넘어 세상을 품다

**책**, 공동체를 꿈꾸다

〈13〉 대전 백복스

혁명은 세계를 거듭나게 하는 일이다. 진부함에 찌른 정신만큼, 억압에 찌른 행태만큼, 죽음에서 삶으로 세계의 중심축을 옮겨 간다. 일본, 철학적 사색이 이루어지는 ‘살라와 기아’라는 그 순간 ‘에서 혁명은 위기와 절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피로 이루어지는 혁명 이전에 세상의 발을 다시 싣으려 한다면, 생명의 발을 다시 싣는 혁명이 전에 텍스트를 반해 세워 읽히는 일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루어는 말한다. “두리는 무엇을 했을까?” 성서를 읽었습니까. 그는 성서를 읽고, 성서를 번역하고, 그리고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여 혁명이 일어나리라. 책을 읽는 것, 그것이 혁명이란 것입니다.”

2002년 6월 월드컵 열풍이 불었다. 밭 그대로 쓰거른 바닷물이 거둬다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와 목청을 돋우어 축구를 응원했다. 거대한 카니발이었다. 억압의 폭발이자 자유의 확인이었다. 민중의 소멸이자 다종의 출현이었다. 소위 '월드컵 세대'의 혁명적 등장이었다. 그로부터 열네 해가 지났다. 축제는 끝나고 열광은 주저앉았다. 다종의 힘을 찬양하던 일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월드컵은 과연 혁명이었을까?

같은 시절, 대전에서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수만 명이 몰려들어 고함치는 거리를 흩뿌려 버려주고, 대학교수 대여섯명과 학생 수백명 남짓이 감시당하고 물려앉았다. 손에는 책 펄치의 '끓는 도전과 용기'가 있었다. 100권독서클럽의 첫 자리였다. 두 주에 한 권씩 책을 읽으면 한 해 25권, 대학 졸업 때까지 100권은 읽을 수 있다고 생각케 하는 이름이었다. 한남대 연영철 교수와 고신철 교수가 모임을 이끌었다. 처음에는 제자들의

특수 학생을 편입학 하려는 경우가 있었다.

기업은 늘 아우성이다. 채용을 잃지 않겠다. 아니 잃지 못하는 학생들을 평범한 졸업생과는 대학을 이해할 수 없다. 단지 지식을 많이 가진 것이다. 지식은 시험을 통해 체크할 수 있다. 문제는 학습 능력이다. 대학교육이 배운 지식의 대부분은 졸업후에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이후 효율성을 잃는다. 지식보다 사회에서 하는 혁신이 생산적으로 일어난다. 때문에 관습에 따른 많은 일선 인지도가 낮다.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옮겨가면서, 내면의 지혜를 내적으로 수확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지식이라기보다는 자질이다. 배우는 능력이자. 배우는 능력은 일기를 마음과 몸과 힘이 풀리는 방법 말고 키우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성인의 훈련이든 정제된 체계가든 기업(OECD 국가 최후진국인 이 나라에서 기업)이 난독을 학생을 대량 배출하는 대학을 비난하는 것만 되야 할 뿐이다.

2002년 교수들과 스무명의 학생
강의실서 100권 독파 목표로 시작
대덕연구단지 연구원들 참여 늘어
온라인 회원은 1만5000명에 달해

독립 연구 능력 갖춘 회원들 강의
과학·인문학 사이 균형 감각 유지
르네상스적 인간 공동체 지향
“대전을 보스턴 같은 지식 도시로”

기치 못한 변화를 불러왔다. “대화 졸업 후 전공 서적의 읽기가 교양 서적을 읽는 것보다 2주일이 더 오래 걸린다”며 책 읽는 재미가 없었으나, 결국 스승 홈페이지에서 만난 강신철 교수의 고백이다. “솔솔이 자기 중의 의지 천재다. 솔솔이들 중에서 우리보다 쉽게 버릴 것 같게 하기도 했다. 제2보통 스승의 품을 만든 책이 불어마련 것이다. 솔솔잡조 자라 갔더니 마치 진전했을 거. 광동체가 터릴 줄을 따가게 한데 거기나 진전했어. 〈총후마조〉 단둥이 아들이 아들을 먹어도 눈앞에서 갇히고, 톨론과자코 셋이 아들을 보는 눈 있었지만 한 번도 책을 읽지 않았다. 톨론자라 하지 않자 하더라도 독서 끼리를 굶을 수 없었고 생각했다.” 솔솔잡조는 거기서. 행간에는 아직 마르고있지 않절하다.

오늘의 백뉴스는 국회 회의의 독서공통체 중 하나다. 대전대학교 외곽에 350명여 이고, 정기 모임에도 40명 정도는 넘는다. '안고진고' '사건진고' '인문학' '생활과 공부' '수학이커다랗다' 등 골라져 따로 책 읽고 토론하는 소모임인데 열 군데가 더 있다. 이렇게도 예술을 공부하는 '당장 만나 프로젝트' 같은 신기한 명칭의 모임도 있다. 대전이 저마다 모인다. 서울, 인천, 충북에서든 전북에서도 별도로 모임이 책 열었다. 사람들이 자립적으로 이룩한 지식 생김 뿐 공유의 대상으로 성장했다. 지금은 창립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지금은 창립대교, 배제와 이음 이후 7기15번에 모인다. 첫수가 벌써 300회를 훌쩍 넘겼다. 은은한 심리대교 전국에 1만 5,000명 가까이 된다. 박성일 회장대표가 말한다.

“서울과 달리 대전과 같은 지방 도시는 농축된
지식을 짧은 시간에 흡수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
습니다. 저하는 단지 책을 읽는 데서 그치는 게 아
니라, 저자를 초청해 강의를 듣거나 발제자를 정
해서 발표하도록 한 후 토론합니다. 저자한테는
너무 대중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내용이 어려우
면 어려운 대로 충실히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합니
다. 토론자 역시 책을 요약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백북스는 저자 초청 강연도 자주 마련한다. '예수전'의 저자 김규형의 강의에 열중하고 있는 회원들

무형의 지식을 시민들의 손으로 농축하고 집약해서 파종한다. 결부리에서 또 다시 새파란 싹들이 올라온다. 싹이 다시 자라 씨를 퍼뜨리면서 대전 속에 지식 문화의 힘찬 통로들이 퍼져간다. 서 울에, 인천에, 충북에 새로운 땅에 접붙인 지식의 식물들이 뿌리를 내린다. 백석스가 지난 열네 해 동안 이룩한 혁명이다. 박성일 대표의 말이 퍼져 퍼짐 허공을 울린다.

“대전을 보스턴 같은 지식 문화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위기가 같은 해를 해낼 겁니다. 사람은 그 시대의 최고 지식을 접하면 반드시 바뀝니다. 시민들이 우리 시대의 최고 지식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자리를 영원히 유지하고 싶습니다.”

◆백복스가 추천하는 과학책

과학의 즐거움을 만끽하려는 이들에게 '내 아이와 함께한 수학일기'를 권하고 싶다. 수학 박사 자 아들 딸 친구들한테 수학을 가르친 기록을 담은 일지 형식의 책이다. 이 책을 읽고 토론회 교육의 중요성, 학습의 즐거움, 인간 모두 안에 내재한 창의성을 볼 수 있겠다. 번역자가 자기가 책보다 더 사랑해서 인상적이다.



내 아이와 함께한 수학일기	알렉산더 드즈넨 지음 박병하 옮김 (영원책, 2016)
사피엔스	유방 하라리 지음 조현숙 옮김 (김영사, 2015)
아름게 죽을 것인가	로버트 하먼 지음 김희철 옮김 (책판, 2015)
빅데이터의 빅뱅시대	강대석 지음 (동아사, 2014)
공생 활동 진화	이창모 지음 (나우루, 2015)
보이지 않는 세계	앨런 와이즈 (휴먼사, 2012)
요람 속의 과학자	영란자 고프리트 지음 리금주 옮김 (시공사, 2006)
생명, 그 정교로움 에 대하여	스튜어트 애버튼 지음 김동광 옮김 (김문사, 2004)
과학과 기술로 본 세계사	제임스 C. 맥클렌더 3세 지음 전태 숙 옮김 (모던사, 2006)
그림으로 보는 거 목은 것의 역사	빌 브라이슨 지음 이덕환 옮김 (까치, 2009)



장은수·출판평론가
순천향대 미디어콘텐츠학과
초빙교수

전국으로 확산... 국내 최대 독서공동체로

진짜 혁명은 사소한 차이로부터 비롯하는 경우가 흔하다. 학생한테 책을 읽으라고 하지 않고, 학생과 같이 책을 읽겠다고 나선 스승의 솔서는 예

말고 관련 분야의 책을 함께 섭렵해서 수준 높게 연구한 후 발제하도록 합니다. 발제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하고 토론하는 진지한 모임

내 백묵스 모듬에서 가장 득이한 건 '연구하느' 내부 발제이다. 대강 연구단원이 있는 대강의 '내부 발제' 아니면 총합력 모듬기 힘든 요소다. 아바트 대강에서 '기 박사'하고 소치미던 한 총에 한 번은 창문으로 고를 내면나는 곳이다. 한 해쯤 나 100명독서클럽이 저리점을 무렵, 외부 초창 토론자 모두 취직에 공감해서 외에서 이면이 자주 생겨났다. 교수·학생 독서 모임에서 시인 독서공동체 하나되는 성취로 점어 대강이 되었다. 박 하우씨는 박하운 박사가 모듬에 참여해 토론을 주도하면서 활동의 품이 커졌다. 그러자 괴막하게 하고 담장을 내어 연구단위 안에 있는 한창전생대 신연구원 건물로 저리점을 옮겼다. 주변 연구원을 참여여 폭발적으로 늘었다. 다들 책에 몰입과 있다. 외부 토론자를 늘리다가 여러 번에서 두 한 해 여덟 번 정도 수준 높은 내부 발제가 가능한 것은 똑똑 연구 노력을 갖춘 동문인 인력 덕분에 다. 백묵스 이점인 이력이 발달한

“저도 연구원입니다. 사실, 저는 책 읽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나오기 시작했죠. 모임에 나오고 나서야 책이라는 세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책 읽고 공부하는 것이 좋아졌어요. 게다가 모임 관련 활동을 하면서 발표 스킬도 늘었습니다. 회사 홍보팀에서 아주 좋아한다고요.”

이정원 이사는 뇌과학을 이용해 예술과 무의식의 비밀을 풀어낸 '통찰의 시대'를 연구 발표했다. 그 내용이 아주 좋아서 서울백복스 등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강연을 했다. 이 책은 어쩌면 하나의 작은 상징과도 같다. 과학과 인문학을 균형 잡는 게 백복스의 주요 목표이기 때문이다. 책을 선별할

때 과학화를 40%가량 배정해서 과학직 사고의 확산에 기여하여 왔다. 대학과 대전의 번리를 극복하는 데도 이런 전경이 도움이 된다. 병역일 대표가 말한다.

“내게 불 붙인 것은 사람이 아니다. 열지 않는 삶 때 마흔도 외소해서 아무도 제비 주지 않았 습니다. 할 수 없이 책이라도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웃음) 과학을 해야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감성적 인문학은 사해입니다. 세계를 할라리다고 침묵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 있어야 하는 사람도, 그가 속한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목소리에 열정이 묻어났다. 방 안 가득 찬다면
하늘이 퍼져 갔다. 청명한 향기가 공중으로 솟아올
랐다. 조금씩 가라앉으며 심신을 하얗게 만든다. 소
수원씨가 말한다.

“축하하고 배워터 독서클럽을 했습니다. 작년에
들어간 후 때때로 작가님 이야기를 듣고 순
전부터 나왔습니다. 경제경영 소모임에 처음 참여
했다. 작지 다른 모임에 비해 좀더 풍요롭고, 전
공이 경제학이라 모임에 나오기 전에 벌써 생애
전부 돈으로 보였습니다. 모임에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서 ‘독서 편식’에서 벗어났습니다. 비로소
다시 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르네상스적 인간을 꿈꾸며

문학, 예술, 인문, 사회, 과학 등 모든 분야의 얹을 한몫에 담은 르네상스적 인간이 백보스의 지향이다. 모든 책은 저마다 세계를 담고 있다. 책을 읽는 일은 하나의 세계를 자기 안에 초대하는 일이다. 온 세계를 모으고 썬아서 자신의 세계를 새로 쓴다.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운다. 이근원씨가 말을 보탠다.

“여기 올 때마다 감명을 받고 갑니다. 제 삶의 나침반이 되는 모임입니다. 저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삶의 지침이 되는 어른을 비로소 보았다는 기분입니다. 인생의 멘토를 만났습니다.”



장은수 출판평론가
순천향대 미디어콘텐츠학과
초빙교수

공동기획

한국일보



책 읽는 사회 문화 재단
Book Culture Foundation